

## 학문의 자유와 여가

南 京 熙

(梨花女大 哲學科)

학문의 자유가 중요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고 확보되어야 할까? 학문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가령 정치적 이데올로기, 종교적 독단, 문화적 편견,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 다수의 횡포로부터의 자유로 이해된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소극적 의미의 자유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나, 실상 진정한 학문의 자유는 이런 소극적 의미로서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뿐 아니라 무엇을 할 자유(free to)가 주어질 때 진정한 학문적 자유가 보장·확보되리라는 것이다.

전자의 소극적 자유가 학문을 위해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와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런 목표의 성취를 위해선 학문하는 정신이 여하한 것에 의해서도 굴절, 왜곡,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의 본성도 자유이며 이 자유가 제약될 때 우리의 진정한 학문 주체인 이성적 정신은 세계와 인간과 사회의 진상에로 나아갈 수 없다. 학문 행위는 일종의 항해와 같다. 우리는 세계 속에, 사회 속에,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실은 세계와 사회와 인간의 진상은 격랑의 바다 저편 해안에 있다. 우

리는 그 해안 맞은 편에 위치한 고도에 머물고 있으나 이곳의 삶에 만족할 수 없고 저편 해안으로 건너가야 할 당위를 느끼므로 학문 행위를 수행한다. 이런 당위의 실현을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비단 학자뿐 아니라 사회인 모두의 요청이다. 사회는 물론 학자들에게 여하한 굴레도 씌우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학자들 자신도 그 자유를 최대한 쟁취해야 하며 스스로 편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내부의 굴레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극적 자유만으로 학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확보되지는 않는다. 학자가 진상이 있는 저편의 해안으로 갈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곳의 일상사에 사로잡혀 저쪽으로 갈 정신적·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그 소극적 자유의 의미마저도 퇴색할 것이다. 적극적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충분한 연구 시간의 제공이다.

학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 또는 진상이라 할 것이나 그들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동료들과 학적 유대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경제적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에선가 일반인들

의 학자들에 대한 존경도·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업화, 자본주의화, 상업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관습이 점차 퇴조해 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학자들의 신분 보장 문제는 그 중요성을 거듭 지적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교수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믿음 때문에 캠퍼스를 떠나야 했던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목도하였다. 학자들은 한 시대와 사회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들 고유 분야에 대한 학문적 입장,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견해를 형성·선택·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신이며 그곳에서는 모든 견해와 이론들이 형성되고 실현되며 표현,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회는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말하자면 한 사회의 정신적 전초 기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충분한 연구 시간의 제공이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진리이다. 원래 영어의 학교를 의미하는 'school'이란 어휘는 회람어의 'scholē'라는 단어에서 그 연원을 갖는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여가를 의미한다. 'school'이란 그 어원에 근거해서 의미를 새기면 한가로움의 곳이란 뜻이다. 한가로운 시간이란 학교, 연구소, 대학의 외적 요건 전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대학은 왜 한가로우야 하는가? 도대체 한가로움이란 무엇인가? 대학에서의 학문적 활동은 우리 삶의 현실, 세계의 사실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급박한 관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학의 학문 활동은 그 현실과 사실을 떠나서, 그리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 관심사를 버리고 객관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과 세계를 靜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학문의 목표는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로 인식함이나 이런 객관적 인식은 그 인식 대상의 밖에서 맑은 거울과 같은 정신으로 그들을 반영할 때 가능하다.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은 그 대상의 모습을 왜곡할 수 있다.

여가, 한가로움이란 그러므로 학문하는 정신의 해방을 의미한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정신은 많은 인생 잡사들로,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 관계로, 사소하나 강렬한 욕구들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 이런 구속의 상태는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사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심은 가져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일상사가 일어나는 세계, 사회, 우리의 삶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대학이란 바로 해방된 정신에 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장소이다.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자신은 가족의 일이나 국가의 일, 사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 모두에 관심이 없다는 다소는 무책임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정신의 해방, 자유를 얻기 위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태도의 표명이었다. 일상인들의 정신의 대부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관심사를 철저히 자신의 삶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삶에 대해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는 매일 아테네인들의 정신적 삶 그리고 경제적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고라(agora)에 나아가 그의 친구와 제자들과 대화함으로써 그러한 인식을 얻으려 했다. 집안 일도 돌보지 않고 정치적 일에도 무관심한 채 친구들과 만나고 얘기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으니 소크라테스는 일상적 기준으로 보면 건달이랄 수도 있겠다. 학자들은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건달 같은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학에서의 방학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방학이 없는 대학 사회와 방학이 있는 대학 사회 중

어느 것이 더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필자는 단연 후자라고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밖의 사람들은 대학 교수는 방학이 있어 좋겠다며 비판조가 섞인 부러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 자신도 약간의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 변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대학은 본성상 한가로운 곳, 현실로부터의, 현실적 삶으로부터의 방학 지대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기간은 학기가 운영되는 기간, 강의가 진행되며 대학의 교무, 학사, 일반 사무가 분주히 처리되는 기간이 아니라, 강의와 사무가 정지되는 방학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인간과 사회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작업, 즉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방학은 대학 교수의 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기간이며, 학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교수들에게 방학은 결코 놀거나 쉬는 기간이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자로서의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비로소 교수들은 자유로운 정신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며, 동료 연구자들과 학적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방학의 이런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은 단지 자유로운 시간을 교수들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연구, 토론, 연수 등의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현대는 대중교육의 시대요, 대량교육의 시대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교수의 연구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을 강조하며 이를 당연시한다. 그리고 심지어 방학중에도 잦다한 회

의 참석, 능환 지도, 하계 또는 동계 강좌, 입사 사무 등으로 교수들을 연구실에서 끌어내려 한다. 필자가 아는 여러 대학들이 겨울에는 교수 연구실에 난방을 제공치 않아 교수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연구실 연료비를 충당하기까지 한다. 교수 연구실은 연구의 현장이며, 대학 교수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수행되는 곳이다. 올바른 대중교육과 대량교육은 오직 교육 담당자인 교수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대량교육, 대중교육이 필요한 만큼이나 교수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학의 제공과 함께 교수의 연구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담당 시간의 단축이다. 현재 법정 담당 시간이 9시간이나, 많은 대학에서 그 이상의 강의 시간 부담이 교수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교육의 부실화, 연구의 부재를 결과한다. 사실상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더라도 성실한 강의 준비를 할 경우, 학기중에는 전혀 연구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교수의 주당 담당 시간은 6시간이며, 이렇게 비교적 적은 시간을 맡고서도 본격적인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코자 할 때에는 휴직을 하거나 안식년을 이용하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번 보았다.

현재와 같이 과도한 강의 부담이 지워지고 연구 기간으로서의 방학의 기능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학문의 자유는 빈곤한 자유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학문적 발전은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 사회의 정신적 발전 역시 담보 상태에 머물 것이다. \*